

제프 핸델의 저서 『Sinography』(2019)와 한국의 차자 표기*

문현수**

〈차 례〉

- 머리말
-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분석
- 한국에서의 한자 변용 재검토
-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제프 핸델(Zev Handel)의 저서인 『Sinography』(2019)에서 제시된 한자 변용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차자표기 전반의 한자 변용 양상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프 핸델 교수가 한국의 차자표기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PAL(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 SPAL(의미적·음성적으로 변용된 표어자)이 한국의 향찰, 이두, 석독 구결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회의자나 음성부 결합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요소를 나타내는 두 글자를 연쇄하거나 음성 요소를 나타내는 두 글자를 연쇄하여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가 존재함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형태소 표기를 중시하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음성 표기를 중시하는 음독구결의 구결자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한자 변용은 표어자 중심에서 표음자 중심으로 변화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차자표기, 한자변용, 표어자, 표음자, 향찰, 이두, 구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22S1A5C2A02092184), 2024년 5월 3일(금)에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된 2024 동아시아한국학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머리말

워싱턴 대학 아시아 언어문학과와 제프 핸델(Zev Handel) 교수는 2019년에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라는 제목의 책을 네덜란드의 라이덴(Leiden)과 미국의 보스턴(Boston)에 지사를 두고 있는 브릴(Brill)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였다. 그는 중국어 음운학 전공자로, 1988년에 하버드대학 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에서 1992년에는 동아시아 언어로 석사학위를, 1998년에는 중국어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워싱턴 대학 아시아 언어문학과에서 중국어학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에서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한자 문자 체계의 발전에 대한 비교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세계화 랩사업의 일환으로 코넬대학교의 존 휘트만(John Whitman)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다(AKS-2016-LAB-2250004). 그 연구 주제는 ‘한국어, 동북아 언어의 중심’으로, 핸델 교수는 이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원으로서 참여하였다. Handel(2019)는 이 사업의 최종 연구 결과물의 하나로서, 브리티시 콜롬비아대학교의 로스 킹(Ross King) 교수, 콜롬비아대학교의 데이비드 루리(David Lurie) 교수, 보훔 루르 대학교의 메리언 에거트(Marion Eggert) 교수를 편집자로 한 시리즈물인 『*Language, Writing and Literary Culture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의 제1권으로 출판한 것이다.¹⁾

이 책에서 핸델 교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자를 매개로 하여 자연어(自言語) 표기를 할 때 한자를 어떻게 변용해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변용에서 보이는 일반적 규칙은 존재하는지, 또 언어 유형이 그러한 변용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이는 한자를 변용하여 사용하던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지만, 다양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

1) Handel, zev,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2019.

구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개는 자국의 언어와 문자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핸델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한자 변용 양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변용 양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어문자사에 있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발달 경로를 따르고 있음을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핸델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분석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한자 변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중에서도 특히 그가 분석한 한국의 한자 변용 방식에 대한 분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차자표기 연구자들의 분석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른 나라의 한자 변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활용한 개념과 방식들이 한국의 차자 표기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분석

한자는 형(形), 음(音), 의(義)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핸델 교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²⁾

(1) G(P, S) (예) 수(/급/, ‘이제’)

(1)에서 G는 Graph의 약자로 형(形), P는 Pronunciation의 약자로 음(音), S는 Semantics의 약자로 의(義)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P는 빗금 // 안에, S는 홑따옴표 ‘ ’ 안에 표시하여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한자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자연어(自言語)를 표기하기 위해서 변용(Adaptation)하여 이용하는데, 핸델 교수는 한자의 변용에 크게 8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2) Ibid., p.18.

고 분석하였다.

(2) 가. 제1유형: DAL(Directly Adapted Logogram)

[한국] 日(/일/, '날') > 日(/일/, '날')

나. 제2유형: SAL(Semantically Adapted Logogram)

[한국] 日(/일/, '날') > 日(/날/, '날')

다. 제3유형: ① PAP(Phonetically Adapted Phonogram)

[한국] 日(/일/, '날') > 日(/일/)

② PAL(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베트남] 沒(/못/, '못[빠자-]') > 沒(/못/, '못[하나-]')

라. 제4유형: ① SAP(Semantically Adapted Phonogram)

[한국] 日(/일/, '날') > 日(/날/)

② SPAL(Semantically Phonetically Adapted Logogram)

[중] 人(/인/, '사람') > 人(/훈/, '훈[사람]') > 人(/훈/, '훈[오르-]')

마. 제5유형: 의미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의 연합

① 표어자+표음자 연합

[한국] 夜(/밤/ 또는 /야/, '밤') + 音(/모/) > 夜音(/밤/, '밤')

② 새로운 형성자 생성

[일본] 月('살') + 泉(/센/, '이즈미[샘]') > 腺(/센/, '센[분비샘]')

바. 제6유형: 의미적 요소끼리 연합 = 새로운 회의자 생성

[한국] 水(/수/, '물') + 田(/전/, '밭') > 畚(/답/, '논')

사. 제7유형: 음성적 요소끼리 연합 = 새로운 음성 합성자 생성

[한국] 道(/도/) + 乙(/르/) > 𨙇(/돌/)

오. 제8유형: 자형 변형

① 약제화

[일본] 天(/텐/, '아메[하늘]') > 天(/테/) > テ(/테/)

[한국] 只(/기/, '다만') > 只(/기/) > 𠂇(/기/)

② 다양한 수단

[베트남] 구별기호 ‘<’ 추가

買(/마이/, ‘마이[사대]’) > 買<(/마이/, ‘마이[새로운]’)

尼(/니/, ‘니[비구니]’) > 尼<(/니/, ‘니[이것]’)

[여진] 획 추가

日(/일/, ‘날’) > 日<(/이닝기/, ‘이닝기[날]’)

글자 결합

十(/십/, ‘열’) + 五(/오/, ‘다섯’) > 五<(/토보훈/, ‘토보훈[열다섯]’)

(2)는 핸델 교수가 제시한 8가지 유형의 한자 변용에 대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실제 한자 변용의 예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DAL, SAL, PAP, SAP은 한국의 차자표기 연구자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이다. 南豊鉉 교수는 차자표기자를 음독자(音讀字), 훈독자(訓讀字), 음가자(音假字), 훈가자(訓假字)로 4분류하는데, 음독자는 DAL, 훈독자는 SAL, 음가자는 PAP, 훈가자는 SAP에 정확히 대응한다.³⁾ (2ㄷ)의 PAL과 (2ㄹ)의 SPAL은 한국의 차자표기 연구자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형이다. 남풍현 교수의 분류법에 따르면 PAL은 음가자, SPAL은 훈가자로 분류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음가자, 훈가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해당 글자들이 특정 형태소를 표기하는 표어자(Logogram)라는 점에 있다.

핸델 교수는 교착어에 속하며 다음절 형태소를 갖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PAL과 SPAL이 발달하기 어렵고, 고립어에 속하며 단음절 형태소를 갖는 베트남어과 좡어에서는 PAL과 SPAL이 발달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표음자인 PAP와 SAP는 조사와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의 음상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교착어인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발달하기 쉽고 이러한 조사와 어미가 없는 고립어인 베트남어와 좡어에서는 발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한다. 그 결과 핸델 교수의 분류법에서는 PAL과

3) 南豊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81.

SPAL은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만 존재하며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조사와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가 특정한 자형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는 형태소 표기자가 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1]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방식(제1-4 유형)

유형	한국	일본	베트남	장
제1유형 DAL	○	○	○	○
제2유형 SAL	○	○	-	○
제3유형① PAP	○	○	-	-
제3유형② PAL	-	-	○	○
제4유형① SAP	○	○	-	-
제4유형② SPAL	-	-	-	○

한편, 핸델 교수는 자연어를 표기함에 있어서 DAL, SAL, PAP, SAP의 4가지 방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아래의 3가지 경우에 새로운 한자 변용 방식을 이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5-8유형의 변용 방식을 이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① 자연어 형태소의 의미와 완벽히 대응되는 의미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 ② 자연어 음절·음소와 완벽히 대응되는 소리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 ③ 독법의 중의성 문제가 발생할 때

여기서 제5유형은 의미적 요소와 음성적 요소의 연합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형성자를 만드는 방법과 표어자-표음자의 연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핸델 교수는 표어자-표음자 연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고, 새로운 형성자 형성은 베트남과 장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쓰임이 매우 적다고 언급한다.

4) Handel, op. cit., pp.101-102.

한국과 일본에서 표어자-표음자 연쇄는 독법의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한자가 DAL로 변용되든 SAL로 변용되든 그 자형만으로는 그것이 DAL, SAL 중 어느 것으로 변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3) 제5유형 ① 표어자+표음자 연쇄

ㄱ. 夜(/밤/ 또는 /야/, ‘밤’) + 音(/로/) > 夜音(/밤/, ‘밤’)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慕竹旨郎歌>

ㄴ. 습(/히/ 또는 /령/, ‘히-’) + 是(/이/) > 습是(/히/, ‘히-’)

誅戮流竄 습是遣 <1262 尙書都官貼>

따라서 표음자인 PAP와 SAP는 (3)처럼 주로 SAL과 함께 쓰여 그 글자가 DAL이 아니라 SAL로 변용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SAL의 독음을 명확히 표시해 주기 위한 음성 보충소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PAP와 SAP에 대하여 한국의 연구자들은 梁柱東 교수 이래로 말음첨기(자)라고 불러왔으며,⁵⁾ SAL에 음성 보충소가 결합되어 한국어 형태소를 표기하는 차자표기법을 金完鎭 교수는 훈주음중(訓主音從)의 원리라고 명명하였다.⁶⁾

(4) 제5유형 ② 새로운 형성자 생성

ㄱ. 한국: 石(/석/, ‘돌’) + 乙(/을/) > 췌(/돌/, ‘돌’)

ㄴ. 일본: 月(‘살’) + 泉(/센/, ‘이즈미[샘]’) > 腺(/센/, ‘센[분비샘]’)

ㄷ. 베트남: 巴(/바/) + 三(/삼/, ‘바[셋]’) > 𠵼(/바/, ‘셋’)

ㄹ. 좡: 口(‘입’) + 巾(/근/, ‘근[수건]’) > 𠵼(/근/, ‘근[턱]’)

DAL과 SAL이 보이는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처럼 새로운 형성자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⁷⁾ 헨델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교착어를 사

5)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6)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7) 익명의 심사위원의 언급과 같이 일반적으로 한자문화권에서 형성자로 인식되는 것은 (4ㄴ)의 ‘腺’처럼 “음성 요소가 해당 형태소의 음절 전체를 표상하는 음성부-분류소 합성자”이며, (4ㄱ)의 ‘췌’

용하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고 고립어를 사용하는 베트남과 좡에서는 매우 일반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표어자-표음자의 연쇄를 이용하는 것은 교착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도 언급한다.

(5) 제6유형

- ㄱ. 한국: 守(/수/, '지키-') > 邊(/갓/, '변방')
- ㄴ. 일본: 人(/사람/) + 動(/도우/, '우고쿠[움직이-]') > 働(/하타라쿠/, '하타라쿠[일하-]')
- ㄷ. 베트남: 人(/년/, '응으어이[사람]') + 上(/트엉/, '쩨[위]') > 上(/쑤/, '쑤[촌장]')
- ㄹ. 좡: 在(/재/, '있-') + 于(/우/, '-에') > 在(/효육/, '효육[-에 있다]')

제6유형은 의미적 요소끼리의 연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언어 형태소의 의미와 완벽히 대응되는 의미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헨텔 교수는 제5유형과 달리 새로운 회의자를 만드는 방법만이 발견되며 표어자+표어자 연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5)처럼 한국, 일본, 베트남, 좡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베트남과 좡에서 훨씬 더 흔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6) 제7유형

- ㄱ. 한국: 道(/도/) + 乙(/르/) > 導(/돌/)
- ㄴ. 베트남: 巴(/바/) + 賴(/라이/) > 羅(/블라이/, '블라이[과일]')
- ㄷ. 좡: [반절법] ^ㄹ(/룩/) + 失(/산/) > 筭(/랄/, '랄[버섯]')

처럼 음성 요소가 해당 형태소의 음절 일부를 표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石’의 ‘石’이 의미 요소를 표상하고 ‘乙’이 음성 요소를 표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형적인 한자의 형성자와 차이가 있지만 헨텔 교수의 분류와 같이 형성자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한다.

제7유형은 음성적 요소끼리의 연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어의 음절·음소와 완벽히 대응되는 소리를 지닌 한자가 없을 때 이용되며, 새로운 음성 합성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용된다. 이 유형의 글자는 한국, 베트남, 좡에서 발견된다. 헨델 교수는 일본의 경우 만요가나로 모든 음절을 표기할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음성 합성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자는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의 표기에만 주로 이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7) 제8유형

- ㄱ. 한국: [약체화, 표음화] 只(/기/, '다만') > 只(/ㄱ/) > 彡(/ㄱ/)
- ㄴ. 일본: [약체화, 표음화] 天(/텐/, '하늘') > 天(/테/) > ㄸ(/테/)
- ㄷ. 베트남: [획 추가, 중의성 해소] 買(/마이/, '마이[사다]') > 買<(/마이 /, '마이[새로운]')
- ㄹ. 좡: [획 삭제, 연관 형태소 표기] 有(/유/, '있-') > '冇'(/음보우이/, '음보우이[없-]')

제8유형은 글자의 자형 변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구결자와 같이 글자를 약체화하는 것이 발견되며, 헨델 교수는 이러한 약체화를 거친 구결자를 구어의 일부 음절만을 표기할 수 있는 표음자로서 불완전한 초기 음절문자(proto-syllabary)로 파악하였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구어의 모든 음절을 표기할 수 있어 완전한 표음문자로 발달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표어자와 자형적으로 구분되어 표음자와 표어자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베트남과 좡에서도 이러한 자형 변형을 이용한 글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그 쓰임이 다르다. 베트남에서는 그 글자가 DAL이 아니라 PAL임을 나타내기 위한 구별 기호로서 '◁'를 PAL에 덧붙여 사용하며, 좡에서는 '없-'를 의미하는 좡어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한자인 有(/

유/, '있-')에서 획을 삭제한 '宀'(/음보우이/, '없-')를 이용하기도 한다.

[표2] Handel(2019)의 한자 변용 방식(제5-8 유형)

유형	한국	일본	베트남	광	비고
제5유형 의미요소+음성요소	연쇄 (새 형성자)	연쇄 (새 형성자)	새 형성자	새 형성자	
제6유형 의미요소+의미요소	새 회의자	새 회의자	새 회의자	새 회의자	베트남, 광에서 더 혼합
제7유형 음성요소+음성요소	(음성 결합자)	-	음성 결합자	음성 결합자	
제8유형 자형 변형	약체화	약체화	다양한 수단	다양한 수단	

헨델 교수는 한국의 경우 PAL, SPAL이 쓰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한자를 생획하거나 초서화하여 변형한 글자인 구결자를 모두 음성적으로 변용된 글자들로 보고, 일본의 히라가나·가타카나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표음자가 된 한자 변용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과연 한국의 경우 PAL과 SPAL이 쓰이지 않는지, 그리고 제6유형과 제7유형에서 글자들의 연쇄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구결자는 음성적으로 변용된 글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독구결의 구결자 가운데에는 단순히 표음자로서의 용법만을 보이지 않는 글자들도 상당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향찰, 이두, 석독구결, 음독구결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에서의 한자 변용 재검토

1) 향찰에서의 한자 변용

향찰에서는 헨델 교수가 언급한 DAL, SAL, PAP, SAP가 모두 발견된다.

이들은 남풍현 교수의 분류법에 따라 각각 음독자, 훈독자, 음가자, 훈가자로 이해되어 왔다.

(8) 향찰의 어휘 형태소 표기

- ㄱ. DAL의 예: 礼(/예/, ‘예도’) > 礼(/예/, ‘예도’)
 - 九世 尽良 礼為白齊 <禮敬諸佛歌>
- ㄴ. SAL의 예: 枝(/지/, ‘가지’) > 枝(/가지/, ‘가지’), 出(/출/, ‘나’) > 出(/나/, ‘나’)
 - 一等隱 枝良 出古 <祭亡妹歌>
 - 爲(/위/, ‘ㅎ-’) > 爲(/ㅎ/, ‘ㅎ-’)
 - 奪叱良乙 何如 爲理古 <處容歌>
- ㄷ. SAL+PAP 연쇄의 예: 心(/ㅁ 숨/, ‘ㅁ 숨’) + 音(/음/) > 心音(/ㅁ 숨/, ‘ㅁ 숨’)
 -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兜率歌>
- ㄹ. PAP+PAP 연쇄의 예: 於(/어/) + 內(/누/) > 於內(/어누/, ‘어누[어느]’)
 - 於內 秋察 早隱 風未 <祭亡妹歌>
 - 古(/고/) + 召(/초/) > 古召(/고초/, ‘고초-[곧추세우-]’)
 - 膝盼 古召拏 <禱千手大悲歌>
 - 乃(/나/) + 乎(/오/) > 乃乎(/나오/, ‘나오-’)
 - 雪是 毛冬 乃乎尸 花判也 <讚耆婆郎歌>
- ㅁ. SAP+PAP 연쇄의 예: 花(/꽃/) + 乎(/호/) > 花乎(/고초/, ‘고초-[곧추세우-]’)
- 兩手 集刀 花乎 白良 <願往生歌>

향찰에서 어휘 형태소 표기는 (8ㄱ)처럼 DAL만으로 이루어지거나 (8ㄴ)처럼 SAL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8ㄷ)처럼 SAL에 음성 보충소로 쓰인 PAP을 조합한 SAL+PAP 연쇄표기도 이용된다. 핸델 교수는 PAP와 SAP와 같은 표음자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의 표기에 주로 이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8ㄷ)처럼 PAP+PAP 연쇄를 이용하거나 (9ㄱ)처럼 SAP+PAP 연쇄를 이용하여 어휘 형태소의 표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9) 향찰의 문법 형태소 표기(1)

ㄱ. PAP의 예: 古(/고/, ‘옛’) > 古(/고/)

道尸掃尸星利望良古 <擘星歌>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安民歌>

ㄴ. SAP의 예: 飛(/비/, ‘날-’) > 飛(/ㄴ/)

打心衆生安爲飛等 <恒順衆生歌>

ㄷ. PAP+PAP 연쇄의 예: 音(/음/) + 叱(/스/) > 音叱(/의/, ‘-의-’)

國惡大平恨音叱如 <安民歌>

ㄹ. SAP+PAP 연쇄의 예: 如(/다/) + 可(/가/) > 如可(/다가/, ‘-다가’)

夜入伊遊行如可 <處容歌>

한편 향찰에서 문법 형태소의 표기는 헨델 교수의 언급과 같이 (9ㄱ)처럼 PAP를 이용하거나 (9ㄴ)처럼 SAP를 이용하여 문법 형태소의 음상을 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9ㄷ)처럼 PAP+PAP 연쇄를 이용하거나 (9ㄹ)처럼 SAP+PAP 연쇄를 이용하여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9ㄷ)의 ‘音叱’는 석독구결에서 그 약체자인 ‘히 히’가 선어말어미 ‘-의-’를 표기하는 데 일관되게 쓰이며, (9ㄹ)의 ‘如可’도 이두에서 연결어미 ‘-다가’를 표기하는 데 일관되게 쓰인다.

(10) 향찰의 문법 형태소 표기(2)

ㄱ. SAL의 예: 白(/백/, ‘슌-’) > 白(/습/, ‘-습-’)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稱讚如來歌>

中(/중/, ‘-괴’) > 中(/괴/, ‘-괴’)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慕竹旨郎歌>

ㄴ. PAL의 예: 賜(/시/, '주-') > 賜(/시/, '-시-')

臣隱 愛賜尸 母史也 <安民歌>

ㄷ. SPAL의 예: 立(/립/, '셔-') > 立(/셔/, '셔-') > 立(/셔/, '-셔')

慕 人 有 如 白 遣 賜 立 <願往生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법 형태소의 표기에 SAL, PAL, SPAL이 이용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헨델 교수는 SAL이 주로 어휘 형태소의 표기에 이용된다고 언급하고 또 PAL과 SPAL은 각각 고립어인 베트남과 좡에서만 그 쓰임이 발견된다고 언급하였지만, 향찰에서는 형태소 표기자로 분석할 만한 예가 상당수 있다. 이들은 어휘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지만, 그 기능상으로는 SAL, PAL, SPAL에 상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ㄱ)의 '白'은 SAL로서 어휘 형태소인 '습-'의 표기에도 쓰이는데, '습-'이 문법화하여 선어말어미가 된 '-습-'의 표기에도 여전히 일관되게 쓰인다. 향찰에서는 이러한 선어말어미 '-습-'의 표기에는 언제나 일관되게 SAL인 '白'만이 이용된다. 또한 '中'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처격조사인 '-귀'를 표기하는 데 일관되게 쓰이므로 SA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ㄴ)의 '賜'는 언제나 선어말어미 '-시-'의 표기에만 이용되는 표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賜'가 가진 음을 이용한 표기이므로 PAL로 볼 수 있다. 또한 (10ㄷ)의 '立'은 명령형 어미 '-셔'를 표기하는데, 이는 한자 '立'를 먼저 의미적으로 변용한 표어자인 '立(/셔/, '셔-')'로 이용한 후 이를 다시 동일한 음상을 지닌 다른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변용은 앞서 좡에서 살펴본 바 있는 한자 변용인 SPAL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SAL로 쓰인 '白'과 '中', PAL로 쓰인 '賜', SPAL로 쓰인 '立'은 이후 석독구결에서도 동일하게 이들을 원자로 갖는 구결자인 '白', '十', '卍', '호'로 쓰이며 각각 선어말어미 '-습-', 처격조사 '-귀', 선어말어미 '-시-', 명령형 어미 '-셔'를 표기하는 데에만 쓰이므로 이들은 순수한 표음자보다는 표어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향찰에서는 회의나 형성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회의자나 형성

자를 만들거나 음성적 요소만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성 결합자를 만드는 방식은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후에 살펴볼 구결자처럼 자형 변형을 거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2) 이두에서의 한자 변용

이두에서도 헨텔 교수가 언급한 DAL, SAL, PAP, SAP가 모두 발견된다. 하지만 향찰보다는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 표기가 이루어진다.

(11) 이두의 어휘 형태소 표기(1)

- ㄱ. DAL의 예: 員(/원/, ‘인원’)
- ㄴ. SAL의 예: 此(/차/, ‘이’) > 此(/이/, ‘이’)
- ㄷ. SAL+PAP의 예: 唯只(/오직/, ‘오직’) = 唯(/오직/, ‘오직’) + 只(/ㄱ/)
- ㄹ. 새로운 회의자의 예: 水(/수/, ‘물’) + 田(/전/, ‘밭’) > 畚(/답/, ‘논’)
- ㅁ. 새로운 형성자의 예: 代(/대/, ‘대신’) + 土(/토/, ‘흙’) = 垚(/대/, ‘터’)

이두의 어휘 형태소 표기는 DAL만으로 이루어지거나(11 ㄱ) SAL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11 ㄴ). 또한 SAL에 음성 보충소로 쓰인 PAP을 조합한 표기도 있다(11 ㄷ). 또한 향찰과는 달리 이두에서는 (11 ㄹ)처럼 새로운 회의자를 만들거나 (11 ㅁ)처럼 새로운 형성자를 만들어 한국어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식도 살펴볼 수 있다.

(12) 이두의 어휘 형태소 표기(2)

- ㄱ. SPAL의 예: 串(/관/, ‘꽃/꽃-’) > 串(/꽃/, ‘꽃/꽃-’) > 串(/꽃/, ‘꽃[마다 쪽으로 좁고 길게 내민 땅]’)
- 작(/작/, ‘지을’) > 作(/질/, ‘지을’) 作(/질/, ‘질[관아의 문서]’)
- 衿(/급/, ‘옷/깃’) > 衿(/깃/, ‘옷/깃’) > 衿(/깃/, ‘깃[재산이나 금전 물품 따위를 나누었을 때의 한 몫]’)

ㄴ. PAL의 예: 分(/분/, '나누-') > 分(/쑤/, '쑤')

ㄷ. PAP+PAL 연쇄의 예: 叱(/스/) + 分(/쑤/, '쑤') > 叱分(/쑤/, '쑤')

핸델 교수는 SPAL과 PAL을 고립어를 사용하는 쟁과 베트남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두에서는 (12ㄱ)처럼 SPAL을 활용하거나 (12ㄴ)처럼 PAL을 활용한 어휘 형태소 표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2ㄴ)에서 PAL로 쓰인 '分'은 (12ㄷ)처럼 PAP로 쓰여 음성 보충소로서 기능하는 '叱'과 함께 '叱分'로 쓰여 동일한 형태소를 표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⁸⁾

(13) 이두의 어휘 형태소 표기(3)

ㄱ. 표어자 연쇄의 예: 大(/대/, '하-') + 父(/부/, '아버지') > 大父(/한아버지/, '할아버지')

大(/대/, '하-') + 母(/모/, '어미') > 大母(/한어미/, '할머니')

山(/산/, '피') + 枝(/지/, '가지') > 山枝(/뿔갓/, '뿔갓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꾸는 산')

ㄴ. PAP+PAP 연쇄의 예: 阿(/아/) + 只(/기/) > 阿只(/아기/, '아기')

召(/쥬/) + 史(/시/) > 召史(/쥬시/, '조이[양인의 아내나 과부]')

ㄷ. SAP+SAP 연쇄의 예: 次(/가슴/) + 知(/알/) > 次知(/가슴말-, '가슴말-[次知하-]')

外(/말/) + 上(/자/) > 外上(/말자/, '말자[外上]')

ㄹ. PAP+PAP 반절법 연쇄의 예: 德(/덕/, '덕') + 應(/응/, '응하-') > 德應(/뉥/, '뉥: 국왕이 타는 가마')

8) '叱[쑤]'와 같은 의존명사나 '-叱[붓]'과 같은 보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고 구성원의 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문법 형태소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전형적인 문법 형태소에 비해 어휘적인 성질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들이 지니는 어휘적인 성격을 좀 더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어휘 형태소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헨델 교수는 제6유형과 제7유형에서는 글자들의 연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두에서는 (13ㄱ)처럼 표어자의 연쇄로 한국어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예와 (13ㄴ)과 (13ㄷ)처럼 표음자의 연쇄로 한국어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예가 모두 발견된다. 심지어 (13ㄹ)은 (6ㄷ)에서 살펴본 쌍의 반절법을 이용한 음성 결합자와 유사하게 반절법을 응용한 PAP+PAP 연쇄로 한국어의 어휘 형태소를 표기한 예라고 할 수 있다.⁹⁾

(14) 일본의 표어자 연쇄의 예

- ㄱ. 貴(/키/, '토오토부[귀하-]) + 方(/호우/, '카타[쪽]) > 貴方(/아나타/, '아나타[당신])
- ㄴ. 大(/다이/, '오오이[크-]), + 人(/진/, '히토[사람]) > 大人(/오토나/, '오토나[어른])
- ㄷ. 大(/다이/, '오오이[크-]) + 和(/와/, '와[倭; 일본]) 大和(/야마토/, '야마토[일본])

(15) 일본의 표음자 연쇄의 예

- ㄱ. PAP+PAP 연쇄의 예: 兎(/토/) + 角(/카쿠/) > 兎角(/토니카쿠/, '토니카쿠[어쨌든])
- ㄴ. PAP+PAP 연쇄의 예: 沢(/타쿠/) + 山(/산/) > 沢山(/타쿠산/, '타쿠산[밭이])
- ㄷ. SAP+SAP 연쇄의 예: 面(/오모/) + 白(/시로이/) > 面白(/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재밌-])

이러한 표어자 연쇄를 통한 고유어 어휘 형태소의 표기는 (14)에서처럼

9) 일반적으로 반절법은 '東·德洪切'과 같이 앞글자의 초성과 뒷글자의 중중성을 나누어 표기하는 음성표기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德應'은 앞글자의 초중성과 뒷글자의 중성을 이용하기에 전형적인 반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앞글자의 처음 소리와 뒷글자의 마지막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 음절을 표기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반절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법이며, (15)에서처럼 PAP와 SAP를 이용한 표음자 연쇄를 통해 일본어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식은 현대 일본어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16) 이두의 문법 형태소 표기

- ㄱ. SAL의 예: 白(/백/, ‘-습-’) > 白(/습/, ‘-습-’)
 再度 搖動令是白乎 事是良尔 <1262 尙書都官貼>
- ㄴ. PAL의 예: 弥(/뎨/, ‘두루’) > 弥(/며/, 연결어미 ‘-며’)
 楮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弥 <0755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乙(/을/, ‘새’) > 乙(/을/, 목적격 조사 ‘-을’)
 石塔伍層乙 成是白乎 願 表爲遣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 ㄷ. SPAL의 예: 臥(/와/, ‘눅-’) > 臥(/누/, ‘눅-’) > 臥(/누/, ‘-누-’)
 捧上爲臥乎等 用良 <1262 尙書都官貼>
- ㄹ. PAP의 예: 去(/거/, ‘가-’) > 去(/거/ 또는 /가/)
 身 病以 遷世爲去在乙 <1031 若木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爲白乎去 望良白乎旃 <吏讀集成>
- ㅁ. SAP의 예: 飛(/비/, ‘날-’) > 飛(/ㄴ/)
 過去爲飛賜 豆溫哀郎 <0766 永泰二年銘石造毘盧遮那佛造像記>
 無上菩提 成內飛也 <0856 窟興寺鐘銘>
- ㅂ. PAP+PAP 연쇄의 예: 去(/거/) + 乃(/나/) > 去乃(/거나/, ‘-거나’)
 □□爲去乃 <1361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一>
- ㅅ. SAP+PAP 연쇄의 예: 如(/다/) + 可(/가/) > 如可(/다가/, ‘-다가’)
 自持爲如可 <1262 尙書都官貼>

SAL, PAL, SPAL을 문법 형태소의 표기에도 확장할 수 있다면, 이두의 문법 형태소 표기에서도 (16ㄱ)처럼 SAL을 이용하거나 (16ㄴ)처럼 PAL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6ㄷ)처럼 SPAL을 이용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16ㄹ)처럼 PAP를 이용하거나 (16ㅍ)처럼 SAP를 이용하여 문법 형태소의 음상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16ㅂ)처럼 PAP+PAP의 연쇄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거나 (16ㅅ)처럼 SAP+PAP의 연쇄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다만, 이두에서는 어휘 형태소의 표기와 달리 문법 형태소의 표기에서는 새로운 회의자나 형성자, 혹은 새로운 음성 결합자를 이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구결에서의 한자 변용

(1) 석독구결의 경우

석독구결에서도 한텔 교수가 언급한 DAL, SAL, PAP, SAP가 모두 쓰인다.

(17) 본문의 한자를 이용한 석독구결의 어휘 형태소 표기

ㄱ. DAL의 예: 起(/기/, '일으키-') > 起(/기/, '일으키-')

<화소01:05-06> 是事起故 是事起

[是]ㄹ 事 起ㄹ 1 ㅅ ㅁ 故 ㅈ [是]ㄹ 事 起ㄹ ㅈ

ㄴ. SAL의 예: 此(/차/, '이') > 此(/이/, '이')

<유가06:02-03> 是故此時能自饒益

是 故 ㅁ 此 時 乙 能 ㅈ 自 ㄹ 乙 饒 益 ㄹ ㅍ 丁 ㅈ ㅅ ㅈ

ㄷ. SAL+PAP 연쇄의 예: 有(/있/, '있-') + 七(/ㅅ/) > 有七(/있/, '있-')

<구인02:01> 復有五道一切衆生

復 ㄹ 1 五 道 七 一 切 衆 生 ㄹ 有 七 ㅈ ㅈ

ㄹ. SAL+SAP 연쇄의 예: 示(/보이/, '보이-') + 卍 (/이/) > 示ㄹ (/보이/, '보이-')

<화엄18:18> 菩薩示行十種行 亦行一切大人法

菩 薩 1 十 ㅍ 種 行 乙 行 ㄹ ㅅ 亦 ㄹ 1 一 切 大 人 ㄹ 法 乙

行 ㄹ ㅅ ㄹ ㅅ ㅈ 1 ㅅ 乙 示 ㄹ ㅈ

다만 어휘 형태소 표기는 (17)처럼 기본적으로 본문의 한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본문의 한자는 DAL 혹은 SAL로 이용된다. SAL에는 음성 보충소로 PAP나 SAP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PAP/SAP는 기본적으로 생획이나 초서체를 활용하여 한자의 자형 변형을 피한 구결자로 표기된다.

(18)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AL 구결자의 예[전훈독자]

- ㄱ. 爲(/위/, ‘ᄃ-’) > ヲ(/ᄃ/, ‘ᄃ-’)
 <화소01:03> 佛子 何 〆 {等} | ヲ ㄱ 乙 菩薩摩訶薩 尸 聞藏 : /
 今 口 {爲} 〆 ㄱ 尸 入 ㄱ
- ㄴ. 捨(/사/, ‘버리-’) > [捨](/버리/, ‘버리-’)
 <화소10:06-07> 若 七 已 ㄱ 乙 〔輟〕[捨] 口 人 ㄱ 十 施 〆 ㄱ | 十
 ㄱ 則 支 窮 苦 〆 〆 亦 夭 命 ノ 尸 乙 ㄱ
- ㄷ. 在(/재/, ‘겨-’) > ㄱ(/겨/, ‘겨-’)
 <화소07:16-17> 過去 ㄱ 十 幾 七 个 七 如來 {有} ㄱ 而 下 般 湼 槃 〆 而
 ㄱ 幾 七 个 七 聲 聞 辟 支 佛 〆 般 湼 槃 〆 ㄱ
- ㄹ. 及(/급/, ‘밋-’) > [及](/밋/, ‘밋-’)
 <자비19:16-18> 閻 羅 大 王 ㄱ 昔 尸 毘 沙 國 七 王 〆 尸 {為} 入 〆 ㄱ ㄱ
 ㄱ : 維 陀 始 王 乙 與 七 〆 〆 亦 共 七 戰 〆 ㄱ ㄱ 兵 七 力 〆 {如}[及]
 七 {不} 毛 〆 〆 ㄱ ㄱ 因 〆 誓 願 乙 立 ㄱ ㄱ ㄱ

(19)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AL 구결자의 예[어휘 보충]

- ㄱ. 爲(/위/, ‘ᄃ-’) > ヲ(/ᄃ/, ‘ᄃ-’)
 <화업04:12> 大 小 便 乙 〆 ㄱ ㄱ 時 十 ㄱ 當 願 衆 生 貪 瞋 癡 乙 棄 〆
 口 八 罪 七 法 乙 蠲 除 〆 乙 立
- ㄴ. 令(/령/, ‘히-’) > ㄱ(/히/, ‘히-’)
 <금광15:04-05> 若 有 處 處 ㄱ 十 此 金 光 明 經 乙 講 宣 〆 白 口 ㄱ ㄱ
 矢 ㄱ

ㄷ. 造(/조/, '짓-') > 造(/짓/, '짓-')

<화엄06:19> 正命人乙 見當願衆生 清淨命乙 得₃ 威儀₃ 十
矯造尸 不₃ 立

ㄹ. 成(/성/, '일-') > 成(/일/, '일-')

<유가23:09-10> 謂₁ 是如₃ 方便乙 攝受₃ 入乙 由₃ 必
ハ 能₃ 正性離生₃ 趣入₃ 乃₃ 至₃ 廣₃ 說₃ 無₃ 失₃

ㄹ. 第(/제/, '*자히') > 第(/*자히/, '*자히')

<구인15:07_2> 譬₁ 虛空₃ 花₃ {如₃ | } 影₃ 三₃ 手₃
無₃ 丁₃ {如₃ | } 丁₃ :

하지만 석독구결의 구결자 중에는 SAL로 쓰인 구결자가 상당수 있다. 이들은 소위 전훈독자로 쓰이거나 본문에 없는 어휘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8)은 전훈독자로 쓰인 SAL의 예이고, (19)는 어휘 보충으로 쓰인 SAL의 예이다. 이 가운데 ‘₃’를 제외한 ‘₃’, ‘₃’, ‘₃’와 같은 약체 구결자들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고 [捨], ‘造’, [及]과 같은 정체 구결자들은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20)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PAL 구결자의 예[전훈독자]

ㄱ. 三(/삼/, '석') > 三(/삼/, '삼-')

<화소25:12-14> {此₃ 藏乙 成就₃ 入₃ 一切 法乙 攝₃ 陀
陀羅尼門乙 得₃ 現在前₃ 百₃ 萬₃ 阿僧祇₃ 陀羅尼乙
以₃ 眷屬₃ {爲₃ 三₃ 乙 }

ㄴ. 又(/우/, '또') > 又(/우/, '우(리)')

<화소12:11-12> {我₃ 等₃ | } 風乙 欽₃ 入₃ 故
來₃ {此₃ 至₃ }

ㄷ. 于(/우/, '탄식하-') > 于(/우/, '우(리)')

<금광15:07> {我₃ 等₃ 皆₃ 當₃ 盡₃ 心₃ 供養₃ }

ㄹ. 一(/일/, ‘한’) > 一(/일/, ‘일-’)

〈유가30:08-09〉能_ㄹ 障_ㄹ 導_ㄹ 乙 {爲} 二_ㄹ 事_ㄹ 七 有_ㄹ 一_ㄹ 所_ㄹ 七 煩_ㄹ 惱_ㄹ

一 此 諸 煩_ㄹ 惱_ㄹ 一

(21)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PAL 구결자의 예[어휘 보충]

子(/지/, ‘아들’) > 子(/지/, ‘지’)

〈자비20:10-11〉三_ㄹ 七_ㄹ 子_ㄹ 名_ㄹ 一 沸_ㄹ 壽_ㄹ 乙_ㄹ 一_ㄹ 沸_ㄹ 沙_ㄹ 獄_ㄹ 乙_ㄹ 典_ㄹ 一_ㄹ 四_ㄹ 七_ㄹ 子_ㄹ

名_ㄹ 一 沸_ㄹ 曲_ㄹ 一_ㄹ 一_ㄹ 沸_ㄹ 屎_ㄹ 獄_ㄹ 乙_ㄹ 典_ㄹ 一_ㄹ

석독구결의 어휘 형태소의 표기에는 PAL 구결자도 사용된다. 이들도 전
훈독자로 쓰이거나 본문에 없는 어휘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0)은 전훈독자로 쓰인 PAL의 예이고, (21)은 어휘 보충으로 쓰인 PAL의
예이다.

(22)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PAL 구결자의 예[전훈독자]

ㄱ. 這(/저/, ‘又’) > 這(/又/, ‘又’) > 這(/又/, ‘글-’)

〈화엄02:14-15〉諸_ㄹ 一_ㄹ 法_ㄹ 相_ㄹ 乙_ㄹ {如} 這_ㄹ 悉_ㄹ 一_ㄹ 能_ㄹ 入_ㄹ 通_ㄹ 達_ㄹ 一_ㄹ

ㄴ. 印(/인/, ‘근’) > 印(/근/, ‘근’) > 印(/근/, ‘글-’)

〈화엄18:09〉彼_ㄹ 刀_ㄹ 亦_ㄹ 一_ㄹ 其_ㄹ 差_ㄹ 別_ㄹ 法_ㄹ 乙_ㄹ {如} 印_ㄹ 世_ㄹ 七_ㄹ 宜_ㄹ 一_ㄹ 所_ㄹ 乙_ㄹ 隨_ㄹ

一_ㄹ 而_ㄹ 一_ㄹ 化_ㄹ 度_ㄹ 一_ㄹ 一_ㄹ

(23)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PAL 구결자의 예[어휘 보충]

ㄱ. 入(/입/, ‘들-’) > 入(/들/, ‘들-’) > 入(/ㄷ/, ‘ㄷ’)

〈금광13:04〉敬_ㄹ 禮_ㄹ 一_ㄹ 自_ㄹ 口_ㄹ 一_ㄹ 一_ㄹ 一_ㄹ 譬_ㄹ 喻_ㄹ 一_ㄹ 一_ㄹ 一_ㄹ 無_ㄹ 二_ㄹ 下_ㄹ 深_ㄹ 無_ㄹ

相_ㄹ 義_ㄹ 乙_ㄹ 說_ㄹ 一_ㄹ 一_ㄹ 一_ㄹ 乙_ㄹ 一_ㄹ

ㄴ. 火(/화/, ‘불[불]’) > 火(/붓/, ‘불[불]’) > 火(/붓/, ‘-붓’)

〈금광15:06-07〉是_ㄹ 說_ㄹ 法_ㄹ 師_ㄹ 乙_ㄹ 火_ㄹ 種_ㄹ 種_ㄹ 一_ㄹ 利_ㄹ 益_ㄹ 一_ㄹ 安_ㄹ 樂_ㄹ 無_ㄹ 障_ㄹ 一_ㄹ 一_ㄹ 身_ㄹ

心_ㄹ 泰_ㄹ 然_ㄹ 一_ㄹ 一_ㄹ 一_ㄹ 一_ㄹ 一_ㄹ

어휘 형태소의 표기에는 SPAL 구결자도 사용된다. 이들도 전훈독자로 쓰이거나 본문에 없는 어휘를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22)는 전훈독자로 쓰인 SPAL의 예이고, (23)은 어휘 보충으로 쓰인 SPAL의 예이다. 이들도 대부분 정체 구결자이며 약체 구결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24) ㄱ. SAL+PAP 연쇄의 예: 스(/히/, '히-') + 미(/이/) = 스미(/히/, '히-')

〈금광15:06-07〉 是說法師乙火種種… 利益ノ安樂無障… 身心泰然… 스미

ㄱ'. SAL의 예: 스(/히/, '히-')

〈유가29:19-20〉 又此有學ヲ金剛喩定ニ究竟… 到テ入… 故ノ修得圓滿スナリセ

ㄴ. SAL+PAP 연쇄의 예: [及](/밧/, '밧-') + 세(/스/) = [及]세(/밧/, '밧-')

〈D자비19:16-18〉 閻羅大王 昔尸毘沙國セ王リ尸[為]ス… ナリ… 維陀始王乙與セツ… 共セ戰ス… 兵セ力リ [如] [及]セ [不]モ… 因テ誓願乙立リナリ

ㄷ. SPAL+PAP 연쇄의 예: 火(/붓/, '-붓') + 세(/스/) = 火세(/붓/, '-붓')

〈금광03:13〉 二者福德火セ具尸未ハツ… 得… 安樂不冬…

ㄷ'. SPAL의 예: 火(/붓/, '-붓')

〈화엄17:19〉 {是} 如… 三昧神通セ相乙火一切天人 能測… 莫セ

석독구결에서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SAL, SPAL 중에는 음성 보충소로 PAP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24). 이들은 음성 보충소인 PAP가 쓰이지 않더라도 동일한 형태소를 표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 구결자들이 표어자로 쓰이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25)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AL, PAL, SPAL 구결자의 목록

- ㄱ. 약체자: ヨ (SAL), ㄱ (SAL), ㄲ (SAL)
- ㄴ. 정체자: 造 (SAL), 成 (SAL), [及] (SAL), [捨] (SAL)
 千 (PAL), 又 (PAL), 三 (PAL), 才 (PAL), 一 (PAL)
 直 (SPAL), 印 (SPAL), 火 (SPAL), 入 (SPAL)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SAL, PAL, SPAL을 살펴보면 (25ㄱ)처럼 약체자가 쓰인 예는 많지 않고 (25ㄴ)처럼 정체자로 쓰인 예가 대다수이다.

(26)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PAP/SAP의 예[전훈독자]

- ㄱ. 斗(/두/, ‘말’) > 斗(/두/)
 <화엄17:20> 妙三昧 {有} 斗 나 | 名 1 隨樂 : 노 牙 :
- ㄴ. 是(/시/, ‘이’) > 是(/이/)
 <구인15:25> {是} 是 名味句 1 音聲 七 果 是 1 : 文字記句 1 一切
 之 七 如 是 1

(27)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PAP/SAP의 예[어휘 보충]

- ㄱ. 良(/량/, ‘어질’) > 良(/아/)
 <구인11:13> 天尊 1 快 兮 十四王 良 乙 說 口 ハニ 1 {是} 是 故 ...
 我 1 今 1 略 兮 佛 乙 歎 1 白 口 卜 1 | 1 七 八 二 1
- ㄴ. 是(/시/, ‘이’) > 是(/이/)
 <화엄18:20> 若 七 有 1 | 衆生 是 壽 量 無 1 : 煩惱 微細 1 七
 樂 具 足 1 七 1 是 1

석독구결에서 어휘 형태소의 표기에 PAP나 SAP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26)은 전훈독자로 쓰인 PAP/SAP의 예이며, (27)은 어휘 보충에 쓰인 PAP/SAP의 예이다.

(28) 어휘 형태소 표기에 쓰인 표음자 연쇄

ㄱ. 去(/겨/) + 𠄎(/스/) = 去𠄎(/거스/, *거스(ㄱ)-[거스르-])

〈금광15:01 난상〉 去𠄎ニ牙 ※ 본문: 逆ニ去セ

ㄴ. [侍(/시/)] + 𠄎(/드/) + 乙(/을/) + 非(/비/) = [侍]𠄎乙[非](/시들비 /, *시들비-[시달리-])

〈자비21:14-15〉 我ヲ 筋力乙ニ 此衆生ヲ 十 {疲}[侍]𠄎乙[非] 令

レヨホ 劫乙 從セ 劫ヲ 十 至リ 其乙 與セ 相對ソトイテ入ニ

한편, 석독구결에서도 PAP+PAP 연쇄나 SAP+PAP 연쇄의 구성으로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는 예가 드물지만 관찰된다(28). 이들은 약체자가 아니라 정체자가 쓰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9) 석독구결 문법 형태소의 표기

ㄱ. SAL의 예

在(/재/, '겨-') > 𠄎(/겨/, '-겨-')

中(/중/, '-괴') > 十(/괴/, '-괴')

以(/이/, '-로') > 𠄎(/로/, '-로')

白(/백/, '습-') > 自(/습/, '-습-')

ㄴ. PAL의 예

斤(/근/, '도끼') > 斤(/근/, '-근')

奴(/노/, '노예') > 𠄎(/노/, '-노-')

乙(/을/, '새') > 乙(/을/, 목적격 조사 '-을')

尸(/리?, '주검') > 尸(/르/, 동명사 어미 '-르')

羅(/라/, '벌-') > 𠄎(/라/, '-라')

습(/령/, '시키-') > 𠄎(/리/, '-리')

利(/리/, '이롭-') > 𠄎(/리/, '-리-')

彌(/매/, '두루') > 𠄎(/며/, '-며')

賜(/시/, '주-') > 𠄎(/시/, '-시-')

示(/시/, '보이-') > 示(/시/, '-시-')
 弑(/익/, '주살') > 弑(/익/, '-익')
 齊(/제/, '가지런하-') > 齊(/저/, '-저')
 兮(/혜/, '어조사') > 兮(/히/, '-히')
 矣(/익/, '어조사') > 矣(/딕<익?/, '-딕')

ㄷ. SPAL의 예

臥(/와/, '눕-') > 臥(/누/, '눕-') > 卜(/누/, '-누-')
 立(/립/, '서-') > 立(/셔/, '서-') > 立(/셔/, '-서')

ㄷ. PAP의 예

只(/기/, '다만') > 只(/ㄱ/)	去(/거/, '가-') > 去(/거/)
古(/고/, '옛') > 古(/고/)	果(/과/, '열매') > 果(/과/)
隱(/은/, '숨-') > 隱(/ㄴ/)	乃(/내/, '이에') > 乃(/나/)
尼(/니/, '중') > 尼(/니/)	丁(/뎡/, '고무래') > 丁(/더/)
刀(/도/, '칼') > 刀(/도/)	斗(/두/, '말') > 斗(/두/)
知(/디/, '알-') > 知(/디/)	冬(/동/, '겨울') > 冬(/들/)
音(/음/, '소리') > 音(/ㅁ/)	毛(/모/, '털') > 毛(/모/)
勿(/물/, '말-') > 勿(/물/)	畚(/읍/, '고을') > 畚(/ㅂ/)
叱(/질/, '꾸짖-') > 叱(/ㅅ/)	沙(/사/, '모래') > 沙(/사/)
良(/량/, '어질-') > 良(/아<라/)	赤(/역/, '또') > 赤, 赤(/여/)
乎(/호/, '어조사') > 乎, 乎(/오/)	矣(/의/, '옷') > 矣(/의/)
止(/디/, '그치-') > 止(/디?/)	下(/하/, '아래') > 下(/하/)
乎(/호/, '어조사') > 乎(/호, 오/)	
支(/기, 히/, '가르-') > 支(/기, 흥/)	
良(/근/, '어긋나-') > 良(/근/)	

ㄷ. SAP의 예

飛(/비/, '날-') > 飛(/ㅍ/)	之(/지/, '-다') > 之(/다/)
彼(/피/, '더') > 彼(/더/)	是(/시/, '이') > 是(/이/)

ㄷ. PAP+PAP 연쇄의 예

ㅅ (/음/) + ㅅ (/스/) = ㅅㅅ (/읏/, '-읏-')

ㅅ (/아/) + ㅅ (/스/) = ㅅㅅ (/앗/, '-앗' 또는 '-앗-')

ㅅ (/스/) + ㅣ (/더/) = ㅅㅣ (/써/, '-써')

ㄸ. 새로운 표음자의 예: ㅍ (/마/)

<금광13:05-06> 世尊 1 佛眼 ㅁ 故 1 一法相 ㅍ 見 尸 無 ㅁ ㅍ 無
上尊 1 法眼 ㅁ 不思議義 ㅁ 見 ㅁ ㅍ

<화엄14:19> {於}彼十方世界 ㅁ 中 ㅁ ㅁ 念念 ㅁ ㅁ ㅍ 1 佛道 成 ㅁ
ㅁ ㅁ ㅁ ㅁ ㅁ 示現 ㅁ ㅁ ㅁ

ㄹ. 새로운 표어자의 예: ㅊ (/곰/, '-곰')

<화엄15:01> 衆生 ㅁ 形相 1 各 ㅊ 不 冬 同 ㅁ ㅁ ㅁ 行業 ㅁ 音聲 ㅁ ㅁ
ㅁ ㅁ 亦 ㅁ 量 ㅁ 無 ㅁ ㅁ ㅁ

SAL, PAL, SPAL을 문법 형태소의 표기에도 확장할 수 있다면, 석독구결의 문법 형태소의 표기에서도 (29ㄱ)처럼 SAL을 이용하거나 (29ㄴ)처럼 PAL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9ㄷ)처럼 SPAL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9ㄹ)처럼 PAP를 이용하거나 (29ㅁ)처럼 SAP를 이용하여 문법 형태소의 음상을 표기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그리고 (29ㄴ)처럼 PAP+PAP의 연쇄로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거나 (29ㅂ)처럼 새로 만들어낸 표음자로 문법 형태소의 음상을 표기하거나 (29ㅇ)처럼 새로 만들어낸 표어자를 이용하여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기도 한다.

한편, 석독구결에서 PAP나 SAP로 분류될 수 있는 구결자 중에는 표어자(Logogram)적 특성을 보이는 것들도 존재한다.

(30) 표어자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PAP의 예

ㄱ. ㅁ (/ㄴ/) > ㅁ (/ㄴ/, 보조사 '-은/는/은/는')

[은] 大衆 ㅁ, [는] 名味 ㅁ, [은] 菩薩 ㅁ, [는] 師子 ㅁ/[是] ㅁ ㅁ

- ㄴ. ㄴ (/ㄴ/) > ㄴ (/ㄴ/, 동명사어미 '-은/은/ㄴ')
 [은] 無 ㄴ, [은] 眷屬 {爲} ㄴ ㄷ ㄴ ㄴ, [ㄴ] ㄴ ㄴ /道 ㄴ ㄴ
- ㄷ. ㄷ (/오/) > ㄷ (/오/, 선어말어미 '-오/우-')
 [오] 受 ㄷ ㄴ ㄴ [우] 得 ㄷ ㄴ ㄴ
- ㄹ. ㄹ (/아/) > ㄹ (/아/, 연결어미 '-아/어')
 [아] 受 ㄹ [어] 無 ㄹ

이들이 표어자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30)에서처럼 이 구결자들이 단 순한 형태 표기가 아니라 형태소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보조사 '-ㄴ'의 이형태인 'ㄴ'을 표기하기 위해 SAP인 'ㄷ'와 PAP인 'ㄴ'의 조합인 'ㄷ ㄴ'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쓰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인 '-우-'를 표기하기 위해 [우]라는 음상을 지닌 'ㄴ'나 'ㄷ'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구결자는 선어말어미 '-우-'를 표기하는 데 이용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들은 언제나 1인칭 대명사 인 '우'를 표기하기 위한 SPAL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 '-오-'는 선어말어미 '-오-'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ㄷ'로만 표기된다. 연결어미 '-아'와 '-어'도 구분없이 언제나 'ㄹ'로만 쓰인다.¹⁰⁾

(31) 표어자에서 표음자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 구결자

- ㄱ. DAL > PAL > (···) > PAP
 去(/거/, '가-') > 去(/거/, 선어말어미 '-가-') > 去(/가/, 의문첨사 '-가') > 去(/거/)

10) 익명의 심사위원의 언급과 같이 석독구결의 구결자에서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 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해당 시기의 한국어에는 모음조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해당 시기에 모음조화가 있었지만 차자표기의 음성적 조작성으로 인해 표기에서는 무시되었다. 셋째, 각 차자가 처음부터 형태소를 표기하는 글자였기에 모음조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세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심사위원의 지적과 같이 향찰이나 이두 자료의 표기법을 고려하면 두 번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ㄷ(/도/, '칼') > ㄸ(/도/, 보조사 '-도') > ㅈ(/또/, '또') > ㅊ(/도/)

ㄴ(/내/, '이에') > ㄹ(/나/, 연결어미 '-나') > ㄺ(/나/, 동사 '나[말하]')

> ㄻ(/나/)

ㄴ. DAL > SAL > SPAL > (···) > SAP

ㄷ(/지/, '-다') > ㄴ(/다/, 종결어미 '-다') > ㄷ(/더/, 선어말어미 '-더-')

> ㄴ(/다/)

ㅌ(/시/, '이') > ㅍ(/이/, 지시대명사 '이') > ㅍ(/이/, 의존명사 '이') >

ㅍ(/이/, 계사 '-이-') > ㅍ(/이/)

그런데 PAP와 SAP 중에는 순수한 표음자라기보다는 먼저 특정 형태소와 긴밀한 연합 관계를 맺음으로써 PAL화 혹은 SPAL화 된 후 이들이 또 다른 표어자를 나타내기도 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음화하여 PAP와 SAP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ㄸ'는 대부분의 경우 선어말어미 '-거-'를 표기하는 데 쓰이지만 한 예외의 경우 의문첨사 '-가'를 표기하는데 사용된다. 'ㄸ'는 대부분 보조사 '-도'를 표기하는 데 이용되지만 말음 첨기로서 [도]라는 음을 표기하는 예도 일부 있다. 'ㄴ'는 거의 대부분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지만 일부 예외의 경우 선어말어미 '-더-'나 조사 'ㄴ ㄴ'의 일부인 [다]를 음성적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ㅍ'도 지시대명사 '이'를 표기하기도 하고 계사 '-이-', 의존명사 '이'를 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석독구결의 PAP와 SAP는 먼저 PAL과 SPAL로 변용되어 특정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던 글자들이 다의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특정 형태소와의 결합성이 해제되어 표음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표3] <화엄경>·<화엄경소> 출현 구결자의 음절표(독음 미상인 之, 与, 甲, 恨과 SAL인 造, [捨] 제외)
 ※ <화엄> 계통에서 쓰이지 않은 구결자: ㄱ, ㄴ, 一, 心, 毛, 千, 巴, 威, 牙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종성
ㅏ		ㅑ	ㅓ							ㅏ	ㅑ	ㅓ	ㅕ							ㅏ
ㅑ	ㅑ									ㅑ	ㅓ									ㅑ
ㅓ	ㅓ	ㅑ	ㅓ							ㅓ	ㅕ									
ㅕ																				ㅕ
ㅗ																				ㅗ
ㅛ																				ㅛ
ㅜ																				ㅜ
ㅠ																				ㅠ
ㅡ																				ㅡ
ㅣ																				ㅣ

이러한 점은 석독구결에서 동일한 음상을 나타내는 구결자가 거의 없고 동일한 음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형태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3]은 <화엄경>과 <화엄경소>에 출현한 구결자의 음절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한 음절에는 하나의 구결자가 쓰인다.

한 음절에 두 개의 구결자가 쓰이는 경우는 ‘ㅑ, ㅓ’, ‘ㅓ, ㅑ’, ‘ㅓ, ㅑ’, ‘ㅓ, ㅑ’을 제외하고 서로 별개의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ㅑ, ㅓ’는 단순한 자형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화엄경>과 <화엄경소>에서는 대부분 ‘ㅑ’가 쓰인다. ‘ㅓ, ㅑ’는 선어말어미 ‘-시-’를 표기하기 위한 표어자로 쓰였는데, <화엄경>과 <화엄경소>에서는 대부분 ‘ㅓ’가 쓰인다. ‘ㅓ, ㅑ’도 동사 ‘굴-’을 표기하기 위한 표어자로 쓰였는데, <화엄경>과 <화엄경소>에서는 대부분 ‘ㅓ’가 쓰인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화엄경>과 <화엄경소>에서 ‘/여/’, ‘/시/’, ‘/ㄱ/’에 대응하는 구결자로 각각 ‘ㅑ’, ‘ㅓ’, ‘ㅓ’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구결자가 다양한 음절을 표기하는 경우는 그 구결자가 표어자적 특성을 보여 다양한 이형태를 표기하는 구결자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

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령 ‘ㄷ’는 선어말어미 ‘-오-’와 ‘-우-’를, ‘ㄹ’는 속격조사 ‘-의’와 ‘-익’를, ‘ㄱ’은 보조사 ‘-는’, ‘-는’, ‘-은’, ‘-은’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尸’와 ‘乙’는 동일한 음상을 지니고 있지만, ‘尸’는 동명사어미 ‘-르’을, ‘乙’은 목적격조사 ‘-을’을 표기하여 그 쓰임이 철저히 변별된다. 또한, ‘彡’와 ‘彡’도 동일한 음상을 지니지만 전자는 계사 ‘-이-’나 주격조사 ‘-이’를 포함하고 후자는 의존명사 ‘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위의 음절표에 빈칸이 많은 것은 석독구결의 구결자들이 처음부터 순수하게 표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의 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어휘·문법 형태소의 표기를 위해 SAL, PAL, SPAL이 활용되고 난 후, 이들이 다시 동일한 음상을 지닌 다른 형태소의 표기에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형태소와의 긴밀한 연합 관계가 깨지게 되어 PAP/SAP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구결자들 가운데 순수하게 PAP, SAP로 쓰여 표음자적인 특성만을 보이는 구결자는 중성 표기에 사용되는 8개의 구결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순수하게 표음적인 목적만으로 만들어진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성 ‘/ㄷ/’와 ‘/ㅇ/’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자가 없는 이유는 주로 어말에 쓰이는 한국어의 문법 형태소 중에 ‘ㄷ’, ‘ㅇ’ 중성을 갖는 것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ハ’과 ‘ㄷ’은 강세첨사로 쓰이고, ‘ㄱ’은 보조사와 동명사어미로 쓰이고, ‘尸’은 동명사어미로 쓰이고 ‘乙’은 목적격조사로 쓰이며, ‘ㄷ’은 속격조사로 활발히 쓰인다. ‘ㄷ’은 ‘-ㄷ 應ㄷ’-’구문에서 어미 표기에 활발히 쓰인다. 유일한 예외는 ‘邑’인데 비록 어말은 아니지만 ‘少邑 邑’, ‘爲 邑 邑’처럼 선어말어미 위치에 쓰인 예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석독구결의 구결자는 생각보다 표음적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지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2) 음독구결에서의 경우

석독구결의 구결자에 비해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아래의 [표4]와 [표5]은 음독구결에 출현한 구결자의 음절표를 제시한 것이다.¹¹⁾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대체로 한 음절에는 다양한 구결자가 쓰인다. 그러나 이들은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달리 변별되는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표4] 음독구결 출현 구결자의 음절표(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ㅝ	ㅟ	ㅡ	ㅣ	ㅥ	ㅧ	ㅩ	ㅫ
ㄱ	可 加	ㅏ 力	ㅑ 方	ㅕ 去 巨			ㅜ 古	ㅟ 本 人 曰 果 卜 亦				ㅣ 十			
ㄴ	尹 乃 那					ㅛ 女	ㅟ 又 又		了				ㅣ 匕 尼		ㅣ 匕 行
ㄷ	ㅏ 夕 多	ㅑ 大 夕	ㅓ 可 力 如		ㅕ 丁 宁	ㅛ 刀				斗 斗			ㅣ 夕 矣 止 知 地	ㅣ 亦 月 入	ㅣ 夕 矣 代
ㄷ	ㅏ 夕 四		ㅓ 夕 矣 汝 女		ㅕ 女 户 呂	ㅛ 又 又 夕 一		了					ㅣ 牙 木 里 川		
ㅍ	ㅏ 广 底				ㅕ 夕 分								ㅣ 木 夕	ㅣ 馬 勿	
ㅂ													ㅣ 非	ㅣ 火	
ㅅ	ㅓ 沙		ㅓ 八 全		ㅕ 一 西	ㅛ 户 所			小				ㅣ 二 八 时	ㅣ 士	
ㅈ	ㅓ													ㅣ 旧 覓	
ㅇ	ㅏ 尸 尸 尸 尸	ㅑ 尸 厓	ㅓ ㅏ 也 二	ㅕ ㅓ 牙 亦 公		ㅛ 呂 与 二	ㅟ 五 年 尸	ㅡ 卜	ㅣ 粟		ㅣ 鳥	ㅣ 夕 衣	ㅣ 夕 川 已 伊 尹		ㅣ 夕 衣
ㅊ													ㅣ 刀 應		
ㅋ				ㅕ 上 牙	ㅛ 时 时	ㅟ 齊									
ㆁ				ㅕ 去											
ㆁ	ㅏ 地					ㅛ 土 吐									
ㆁ	ㅓ 下					ㅛ 尸 户							ㅣ 皆	ㅣ 夕	ㅣ 命

11) 문현수, 「형태소 표기 중심의 석독구결과 음성 표기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화회, 2023, 219-220쪽.

[표5] 음독구결 출현 구결자의 음절표(2)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ㅅ	ㅇ	종성
ㄱ													如		ハ
ㄴ						ㄴ				ㄴ					ㄴ
ㄷ				ㄷ		ㄷ				ㄷ					
ㄹ					ㄹ					ㄹ					乙
ㄺ	ㄺ		ㄺ							ㄺ					ㄺ
ㄻ										ㄻ					邑巴
ㄼ									ㄼ						七
ㄽ												ㄽ			
ㄾ		ㄾ			ㄾ	ㄾ			ㄾ						
ㄿ															

(32) ㄷ ㄴ ㄷ ㄴ ㄷ ㄴ [디]

- ㄱ. 壯色、不停ノ ㄱ [혼디] 猶如奔馬ッス ㄱ ㄴ
- ㄴ. 若不修行ッテ 與不聞 ㄴ 等ノ ㄴ [혼디] 如人、說食口 終不能飽
ノ、 |
- ㄷ. 此了知心、潛在根內ノ ㄱ [혼디] 如琉璃合ッス ㄴ ㄴ
- ㄹ. 地藏菩薩 證十地果位已來去 ㄹ 知 [건디] 千倍多於上喻ッヒ
- ㄺ. 衆生、莫輕小惡 以爲無罪ッノ ㄴ ㄴ [라홀디니]

(33) ㄱ ㄴ ㄷ [마]

- ㄱ. 疑已得果言 ㄱ ㄱ [언만]
- ㄴ. 唯一佛乘才 ㄱ ㄱ [언만]
- ㄷ. 應墮惡道ッリ ㄱ ㄱ [히리언만]

예를 들어, (32)의 ‘ㄷ, ㄴ, ㄷ, ㄴ, ㄷ, ㄴ’는 모두 의존명사 ‘디’와 주격조사 ‘-이’ 내지 계사 ‘-이-’의 결합형인 ‘디’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34)의 ‘ㄱ, ㄴ, ㄷ’도 모두 의존명사 ‘마’를 표기하고 있다.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달리 이형태 표기를 위해 별도의 구결자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중세국어에서는 ‘ㅎ-’의 뒤에는 연결어

미 ‘-아’의 이형태 ‘-야’,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요-’가 쓰이는데, ‘ㄱ[야]’와 ‘ㅍ[요]’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별하여 표기하기 위해 음독구결에서 새롭게 마련된 구결자이다. 석독구결에서는 이러한 이형태 구분 없이 언제나 구결자 ‘ㄱ’와 ‘ㅍ’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ㄱ ㅍ[애]’도 중세국어의 처격조사 ‘-애’를 적극적으로 변별하여 표기하기 위해 음독구결에서 새롭게 마련된 구결자로 볼 수 있다. 석독구결에서는 이 경우에도 언제나 ‘ㄱ’만이 이용된다. 또한 석독구결에서는 선어말어미 ‘-습-’의 다양한 이형태가 언제나 ‘ㅍ’ 하나만으로 표기되는 반면, 음독구결에서는 ‘ㅍ ㅍ[스오]’, ‘ㅍ ㅍ[습]’, ‘ㅍ ㅍ[스오]’, ‘ㅍ[습]’과 같이 다양한 구결자들을 이용하여 이형태를 적극적으로 구별하여 표기한다.¹²⁾

(34) ㄱ. 佛七 五指端 各有輪相 ヽ ㄱ 비스[흐시니라]

ㄴ. 計常 ヽ 乙 ㄱ ㅍ[홀시라]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ㅍ’처럼 석독구결 시기부터 꾸준히 이용되어 온 일부의 표어자를 제외하고 SAL, PAL, SPAL에 해당하는 글자의 쓰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대부분 PAP나 SAP로 파악할 수 있다. 언제나 선어말어미 ‘-시-’만을 표기하는 석독구결의 PAL ‘ㅍ’와 달리, 음독구결에서 ‘ㅍ’는 (34ㄱ)처럼 선어말어미 ‘-시-’를 표기하기도 하고 (34ㄴ)처럼 의존명사 ‘스’와 계사 ‘-이-’의 결합형인 ‘/시/’를 표기하는 데에도 쓰인다. 따라서 음독구결의 ‘ㅍ’는 석독구결과 달리 PAP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독구결의 구결자는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달리 표음적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지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12) 위의 책, 238쪽.

13) 위의 책, 238쪽.

4. 맺음말

본고의 검토 결과 헨델 교수가 제시한 한자 변용 유형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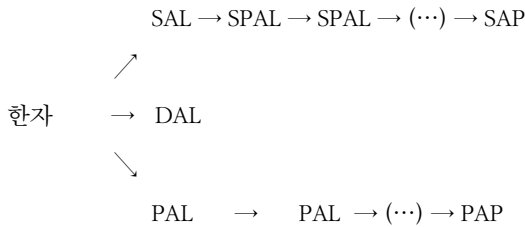
[표6] 수정된 한자 변용 방식(제1-8유형)

유형	한국	일본	베트남	장	비고
제1유형 DAL	○	○	○	○	
제2유형 SAL	○	○	-	○	
제3유형① PAP	○	○	-	-	
제3유형② PAL	●	-	○	○	일본에도 있을 수 있음
제4유형① SAP	○	○	-	-	
제4유형② SPAL	●	-	-	○	일본에도 있을 수 있음
제5유형 의미요소+음성요소	연쇄 (새 형성자)	연쇄 (새 형성자)	새 형성자	새 형성자	
제6유형 의미요소+의미요소	연쇄 (새 회의자)	연쇄 (새 회의자)	새 회의자	새 회의자	
제7유형 음성요소+음성요소	연쇄 (음성 결합자)	연쇄	음성 결합자	음성 결합자	
제8유형 자형 변형	약제화	약제화	다양한 수단	다양한 수단	

한국과 일본은 다음절 형태소를 갖는 교착어를 사용하므로 DAL, SAL, PAP, SAP만으로 고유어 형태소를 표기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미요소+음성요소의 연쇄, 의미요소+의미요소의 연쇄, 음성요소+음성요소의 연쇄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반해, 단음절 형태소를 갖는 고립어를 사용하는 베트남과 장의 경우 이러한 연쇄보다는 새로운 형성자, 새로운 회의자, 새로운 음성 결합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고유어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두와 석독구결의 경우 PAL, SPAL과 같은 표어자가 쓰이는데, 이는 이들의 경우 문법 형태소의 표기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소의 표기

또한 중요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음독구결의 경우 이러한 표어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PAP, SAP와 같은 표음자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어휘 형태소의 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음독구결의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음독구결의 구결자의 비교를 통해 석독구결에서 PAL이나 SPAL로 쓰이던 구결자들이 음독구결에서는 PAP, SAP와 같은 표음자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PAP와 SAP의 성립은 먼저 PAL, SPAL로의 쓰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있다. 그렇다면 한자 변용은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음절 형태소를 가진 고립어를 사용하는 베트남과 좡의 경우에는 한자 변용이 표어자 변용의 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PAL 내지 SPAL만이 존재하고 SAP와 PAP이 쓰이지 않는 반면, 다음절 형태소를 가진 교착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 변용이 표음자 변용의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SAP와 PAP가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표음자화가 완료되어 SAP/PAP만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의 석독구결의 구결자에는 어휘 형태소의 표기를 위한 SPAL/PAL이 여전히 남아 있어 표음화가 완료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주로 문법 형태소의 표기를 중시하는 음독구결에 이르러서는 어휘 형태소를 표기하던 SPAL/PAL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던 SPAL/PAL도 SAP/PAP화함으로써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처럼 표음자화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저서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81.

朴盛種, 『朝鮮時代 吏讀 研究』, 역락, 2016.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의 구성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헨리 로저스(2018), 『언어학으로 풀어 본 문자의 세계』, 이용 외 옮김, 역락.

Handel, zev,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2019.

2. 논문

문현수, 「구결자 ‘ㄹ’과 ‘ㅅ’가 나타내는 형태적 구성에 대하여: 분포와 기능이 겹치는 ‘ㄹ’과 ‘ㅅ’를 중심으로」, 『東洋學』 7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20, 1-14쪽.

_____,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2020, 71-98쪽.

_____, 「형태소 표기 중심의 석독구결과 음성 표기 중심의 음독구결」, 『어문논집』 98, 민족어문학회, 2023, 213-244쪽.

이 용, 「베트남의 한자 전파와 쓰놈의 발전」, 『口訣研究』 47, 口訣學會, 2021, 151-189쪽.

_____, 「세계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 전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술총서1: 박물관, 문자를 이야기하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4, 78-151쪽.

_____,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접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결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4, 185-206쪽.

황선엽, 「삼국유사와 균여전 향찰의 표기자 비교」, 『國語學』 51, 國語學會, 2007, 280-311쪽.

Zev Handel's *Sinography* (2019) and the Korean Vernacular Writing

Moon, Hyunsoo*

In this paper, we critically examined the methods of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presented in Zev Handel's *Sinography*(2019), and based on this, we examined the patterns of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across Korean vernacular writings. As a result, we found that PALs (Phonetically-Adapted Logograms) and SPALs (Semantically-Phonetically-Adapted Logograms), which Professor Zev Handel claimed were not observed in Korean vernacular writings, are actively used in Hyangchal, Idu, and Seokdok-Kugyol. We also found that morphemes are not only represented by creating new innovated sinograms, but also by linking two sinograms that represent semantic elements or linking two sinograms that represent phonetic elements. Through a comparison of the morpheme-oriented sinograms of the Seokdok-Kugyol and the phonetic-oriented sinograms of the Eumdok-Kugyol, we als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in Korea may have shifted from Logographic to Phonographic.

Key words : Vernacular Writing, Chinese character adaptation, Logograms, Phonograms, phonemes, Hyangchal, Idu, Kugyol

논문투고일 : 2024년 7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20일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